


금융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, 인터넷에서 「파인」 두 글자를 쳐보세요

“금융은 튼튼하게, 소비자는 행복하게”

	보도자료		
	보도	2018. 7. 31.(화) 석간	배포
담당부서	불법금융대응단	김경영 부국장(3145-8129), 권순표 수석(3145-8526)	

제 목 : 회원가입만 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유사수신업체에 주의하세요

- 100% 고수익 보장? 100% 사기! -

1 개요

- (배경) 가상통화, FX마진거래, 핀테크 등 최신 유행하는 사업을 내세워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이 여전히 성행하는 가운데,
 - 최근 주부·노인 등을 대상으로 특별한 사업(수익)모델이 없음에도 회원 가입만 하면 누구나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등 무작정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묻지마 투자를 권유하는 유사수신도 계속해서 발생
- (특징) 단순 회원가입, 광고 클릭이나 댓글 작성, 신용카드 사용만으로도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투자자를 속임
 - 미리 투자한 사람들은 이미 고수익을 달성했으며, 빨리 투자할수록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투자자의 조급한 심리를 악용해서 투자를 유인
 - 주변 지인 등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연고영업을 하거나, 인터넷 블로거 등을 동원해 투자를 권유
 - 하위 회원 모집 실적에 따라 고액의 수당을 지급하거나 수익을 공유하는 다단계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

⇒ 상대적으로 금융전문지식이 부족한 주부 및 노인 등을 대상으로 고수익을 미끼로 하는 유사수신이 성행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

2 피해신고 사례

가. 단순 투자 또는 회원 가입시 고수익 보장

- 인터넷 재택 부업회사로 가장하여 단순히 투자상품에 투자만 하거나 혹은 단순히 회비를 내고 회원으로 가입하기만 하면 단기간에 원금이 회복되고, 장기간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주장하면서 투자를 권유
- 주로 부업에 관심이 많은 주부를 대상으로 인터넷에서 다수의 블로거 등을 동원하여 자금을 모집

◆ **(A업체 사례)** 투자금액별로 수익률이 다른 다수의 고수익 투자상품을 제시하면서 자금을 모집

- 30만원을 투자하면 매일 3만원씩 지급하여 10일이면 원금이 회복되며, 2년 동안 계속 동일한 수익을 지급하여 최고 73배의 수익을 얻게 된다고 투자자를 현혹
- 투자금으로 들어오는 금원을 기존 투자자가 공유하는 공유수익 지급 방식*으로 지속적인 수익실현이 가능하다고 주장

* 신규 회원이 투자한 금원을 기존 회원에게 나누어 지급하는 다단계 마케팅 방식

◆ **(B업체 사례)** 회비를 납부하고 회원이 되기만 하면 고수익이 보장된다면서 자금을 모집

- 회비(30만원, 70만원 등)를 납부하여 회원이 되면 A업체와 동일하게 공유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10일~15일이면 원금이 회복되고,
- 이후 동일한 방법으로 평생 지급해 소액으로도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투자자를 현혹

나. 광고를 보기만 하거나, 댓글만 달아도 고수익 보장

- 광고 서비스 회사로 가장하여 회비를 내고 회원으로 가입하면 단순히 광고만 보거나, 광고에 댓글만 달아도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주장하면서 투자를 권유
 - 고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의 연고영업을 통해 노인 등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

◆ (C업체 사례) 전 세계에 많은 지사를 두고 세계 최초로 광고수입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수익을 나눠주면서 운영하는 회사라고 주장하면서

- 몇 만원만 투자해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, 회원 가입 이후에는 게재된 광고만 봐도 매일 8%의 수익을 무한대로 얻는다고 투자자를 현혹

- 인터넷을 통해 주부를 대상으로 고수익 재택 부업임을 강조하며 자금을 모집

◆ (D업체 사례) 광고주와 회원이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광고 서비스회사라고 주장하면서

- 500~600만원을 투자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면 게재된 광고에 매일 단순 댓글만 달아도 2년 동안 3배의 수익이 보장된다고 투자자를 현혹

다.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추가 수익을 보장

- 신용카드 회사로 가장하여 투자수익과 별개로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일정비율 만큼의 추가 수익을 보장하면서 투자를 권유
 - 주로 주변 지인 등을 통한 다단계 방식의 연고영업을 통해 자금을 모집

◆ (E업체 사례) 금융당국으로부터 정식 인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신용카드 사업을 정식으로 허가받은 회사라고 주장하면서

- 최고 1,760만원을 투자하면 매일 5만 포인트(5만원 해당)를 무한 지급하고(연 수익률 약 100% 수준),
- 곧 신용카드를 발급할 예정인데 사용금액에 대하여 30%의 포인트를 지급하며,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투자자를 현혹

3 소비자 유의사항

□ (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면 일단 의심)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·적금 금리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하면 업체규모나 영위업종에 상관없이 일단 투자사기를 의심

□ (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반드시 확인) 실체가 불분명한 업체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을 경우 반드시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를 먼저 확인*

* ① 인터넷에서 **파인** 두 글자를 치거나, ②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(<http://www.fss.or.kr/s1332>) 홈페이지 접속 →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

□ (금융감독원에 사전 문의) “세상에 공짜는 없다”란 말이 있듯이, 고수익에는 항상 투자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명심하고, 뭔가 미심쩍으면 금융감독원 「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(☎1332)」에 사전 문의

□ (피해시 즉시 신고) 유사수신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즉시 금융감독원 「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(☎1332)」나 경찰(☎112)에 신고

○ 금융감독원은 「불법금융 파파라치」 포상 제도를 통해 신고 포상금을 지급*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신고·제보를 당부드립니다

* 신고내용의 정확성, 피해규모, 수사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 지급여부 및 규모를 결정